

# 海印寺 大藏經板에 포함된 중복경판 및 보각경판의 역사·문화적 성격과 보존방안\*

최영호\*\*

< 차 >

- I. 머리말
- II. 중복경판의 조사경위와 분석방식
- III. 중복경판의 현황과 보각경판의 보각성격
- IV. 맺음말 : 보각경판의 전체 수량으로의 편입방안

국문요약

이 글에서는 국보 제32호 해인사대장경판 가운데 포함된 중복·보각경판 실체와 성격을 정리하고, 해인사대장경판의 전체 수량을 다시 조정하는 현실적 방안도 진단하였다.

해인사대장경판의 전체 수량은 1914년 조선총독부의 전수조사에서 81,258판으로 조사·정리된 이후 연구자의 대부분이 그대로 수용하였다. 그러다가 1999~2008년에는 전체 수량이 81,350판으로 조사되었으며, 2013년에는 『內典隨函音疏』 2판의 발견으로 81,352판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2012~2013년 및 2015년에는 객관적인 분석절차·방법으로 다양한 분석지표를 활용하여 해인사대장경판에 포함된 중복경판, 사간경판 가운데 해인사대장경판의 포함여부, 『내전수함음소』의 성격 등을 조사하여 전체 수량을 새롭게 조정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자료를 확보하였다. 그 결과, 해인사대장경판에 포함된 개별경판의 중복경판 가운데 후대 보각경판은 118판으로 조사되었다. 후대 보각경판은 우왕 7년 이후~刊經

\* 본 논문은 2015년 11월 30일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가 개최한 ‘국보 제32호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 성격과 가치’라는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하였다.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석당학술원 조교수

都監의 운영 전후를 포함하여 1937년까지 최소 7차례나 조성되었다. 그리고 『大乘瑜伽金剛性海曼殊室利千臂千鉢大教王經』 10권은 溪函 126판과 雞函 121판의 이중경판이라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해인사대장경판의 전체 수량은 국보 제32호의 현재적 구성범위를 유지하면서 다시 조정할 수 있는 3가지 방안과 함께 『내전수함음소』의 포함여부도 진단하였다. 후대 보각경판의 전체를 제외하는 경우,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보각경판만 제외하는 경우, 보각경판 전체를 포함하는 경우가 3가지 방안이다. 이 가운데 최선의 방안은 다양한 역사·문화적인 성격과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여 3번째 경우로 진단하였다. 그러면서 2번째 방안이 채택될 경우에는 일제강점기에 보각된 36판을 근대문화유산이나 경상남도 유형문화재로 별도로 지정하는 방법도 차선택으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내전수함음소』 2판도 『大乘理趣六波羅蜜多經』 10권의 보완적 텍스트로 편제되어 조성되었으므로 해인사대장경판의 전체 수량과 국가기록유산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 근거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현실적 조건에서는 전체 수량을 81,352판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최선책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 해인사, 해인사대장경판, 중복경판, 보각경판, 『내전수함음소(內典隨函音疏)』.

## I. 머리말

현재 국보 제32호로 지정되어 있는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이하 해인사대장경판)’의 대부분은 고종 19년(1232) 몽골의 침략으로 符印寺에 보관되어 있던 소위 초조대장경판이 불타 없어진 이후, 고려 조정이 몽골침략의 격퇴와 국가·왕실의 안녕 등을 기원하기 위해 같은 왕 23~38년 9월 조성하였다. 완성된 경판은 江華京(지금의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大藏板堂에 보관되어 있다가 안정적인 이고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우왕 7년(1381) 4월 이전 海印寺(지금의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산)로 옮겨와<sup>2)</sup> 현재까지 장경판전에 온전하게 봉안되어 있다. 해인사대장경판에는 13세기 중엽 모든 고려 사람들이 염원하고 실천한 민족적 위기(몽골침략의 격퇴) 및 현실모순(파행적인 최씨무인정권)의 극복의지와 함께 전통불교문명의 창조적 계승·발전 노력, 당대 불교 敎學의 발전수준과 목판인쇄술의 역량이 함축적으로 투영되어 있다.<sup>3)</sup> 이러한 역사·문화적 가치로 1962년에는 국보 제32호로 지정되었으며, 2007년 6월에는 유네스코(UNESCO)의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인류의 보편적 기록유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사회에서는 해인사대장경판의 전체 수량에 대한 조정·확정 문제가 대중들의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1999~2008년 ‘해인사고려대장경 디지털영상화 및 기초자료 데이터베이스화사업’에서 전체 수량이 기존의

---

<sup>2)</sup> 해인사대장경판이 해인사로 이안된 시기는 충숙왕 5년(1318)부터 우왕 7년 사이, 조선 태조 2년(1393) 이전, 태조 6년부터 태종 5년(1405) 사이, 태조 7년 5월 이후부터 정종 원년(1399) 정월 사이 등과 같이 다양한 견해가 있다. 이들 견해는 최근 비판적으로 재검토되면서 충숙왕 5년 11월 이후부터 우왕 7년 4월 사이에 해인사로 옮겨왔다고 한다.

李崇仁, 『驪興郡神廟寺大藏閣記』, 『陶隱集』 권4, 記 및 『東文選』 권76, 記.

李崇仁, 『睡菴文長老印藏經于海印寺獻呈』, 『陶隱詩集』 권3, 詩.

李穡, 『送懶翁弟子印大藏海印寺』, 『牧隱詩藁』 권28, 詩.

高橋亨, 『海印寺大藏經について』, 『哲學雜誌』 327, 1914.

高橋亨, 『高麗大藏經板印出顛末』, 『朝鮮學報』 2, 1951, 211~213쪽.

尙玄(李能和), 『海印寺大藏經板來歷』, 『佛敎振興會月報』 7, 불교진흥회, 1915, 46~48쪽.

崔永好, 『高麗國大藏都監의 조직체계와 역할』, 『한국중세사연구』 31, 2011, 345~350쪽.

任得均(性安스님), 『高麗大藏經의 海印寺 봉안과 사원의 위상』, 『石堂論叢』 54, 동아대 석당 학술원, 2012, 389쪽.

특히 성종 22년(1491) 春秋館 修撰官 曹偉가 지은 『海印寺重修記』 記文1(제1장 : 해인사 팔만대장경연구원 디지털사진 및 동아대학교 합진재 소장 인경본)에서도 ‘고려 때 國史(역대실록)를 보존하였고, 大藏經板도 간직하였다[高麗時, 藏國乘, 又藏大藏經板]’라고 하여 고려시대에 해인사로 옮겨온 사실이 확인된다.

<sup>3)</sup> 최영호, 『江華京板 『高麗大藏經』의 판각사업 연구』 경인문화사, 2008, 3~4쪽.

81,258판에서 81,350판으로 조사되었으며, 2013년 7월 보물 제1806호로 지정된 『內典隨函音疏』 2판이 추가·발견되면서 81,352판으로 확대·조정될 수 있는 요인들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해인사대장경판의 전체 수량을 다시 조정하기 위한 조사사업이 이후 2차례에 걸쳐 수행되었다. 2012~2013년의 ‘국보 제32호 해인사대장경판 중복판 조사용역사업’과 2015년 ‘해인사 사간판 내 대장경판 중복여부 조사용역사업’이다. 이러한 2차례의 용역사업으로, 해인사대장경판의 전체 수량을 새롭게 조정·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 기초자료가 확보되었다.

그러면서 해인사대장경판의 전체 수량을 새롭게 조정하는 과정에서는 향후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도 남아 있다. 그 과제 가운데는 개별 중복경판에 포함된 후대 보각경판의 현황확인<sup>3)</sup>과 편입여부, 그리고 『내전수함음소』 2판의 편입여부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 문제는 최근 2차례에 걸쳐 수행한 조사사업의 내용 및 결과와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2차례에 걸친 조사사업의 결과와 해당 보고서(『국보 제32호 합천 海印寺大藏經板 중복판 조사용역사업 보고서』 및 『海印寺 寺刊板 내 大藏經板 중복여부 조사용역사업 보고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집중적으로 정리하였다.

우선, 해인사대장경판에 포함된 중복경판의 조사경위와 분석방식을 소개하였다. 조사사업의 배경이나 경위는 2차례 조사사업의 목적이 해인사대장경판의 전체 수량을 확정하는 선행적인 조사절차로서의 당위성을 확보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를 진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방식은 본 조사사업의 분석지표와 방법론 등이 객관적인 절차와 근거를 확보하였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되며, 최종 도출 결과물도 객관적인 신뢰성과 정밀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2차례의 조사사업에서 확인된 중복경판의 현황과 보각경판<sup>4)</sup>의 성격을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해인사대장경판의 중복경판 가운데 포함된 원판 및 후대 보각경판의 현황과 함께 보각경판의 보각시기·성격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도출 결과물은 향후 해인사대장경판의 전체 수량을 새롭게 조정·확정하는

3) 문화재청/문화유산정보(<http://www.cha.go.kr/korea/heritage/>)/문화재검색/합천 해인사 내전수함음소 권490 목판.

4) 중복경판은 원판분류경판과 중복분류경판을 함께 묶은 용어다. 원판분류경판은 현재 인경의 편입성 등을 확보할 목적으로 원판과 함께 편입되어 있는 경판으로, 이 가운데는 대부분이 원판이며, 일부의 경우 후대 보각경판이 포함되어 있다. 중복분류경판은 개별경판 1종의 원판과 후대 보각경판을 합친 중복경판이다. 보각경판은 원판의 조성 이후, 다양한 요인으로 후대에 다시 새긴 경판이다.

5) 이 글에서 보각경판은 해인사대장경판의 원판들 가운데 특정의 개별경판이 마모·훼손 등으로 인해 후대에 해당 경판을 다시 조성한 개별경판을 지칭한다.

과정에서 핵심적인 근거자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해인사대장경판의 전체 수량을 새롭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개별 보각경판의 편입 방안과 근거를 정리하였다. 아울러 최근에 발견되어 보물 제1806호로 지정된 『내전수함음소』 2판이 해인사대장경판으로 편입될 수 있는 역사·문화적인 근거도 제시하였다.

## II. 중복경판의 조사경위와 분석방식

해인사대장경판의 전체 수량은 기존에 81,258판으로 알려져 있었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事務官 오다 간지로(小田幹治郎)가 1915년 인출불사를 위한 해 전인 1914년 10~11월 해인사대장경판의 현황을 사전에 전수조사하면서 해인사대장경판의 전체 수량을 81,258매(결판 18매 및 중복판 121매<sup>6)</sup> 포함)로 파악하였다.<sup>7)</sup> 그 수량은 1915년 4월 81,258매로 언론에 보도되었으며,<sup>8)</sup> 이후에는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불교지식인들의 상당수가 수용하였다. 1917년 「乾鳳寺燒身臺石塔新築記」를 지은 불교지식인 雲阜 金一字<sup>9)</sup>는 조선 순종 4년(1910 : 융희 4) 조사<sup>10)</sup>된 경판수량 86,618매와 더불어 이 때 조사된 경판수량을 81,258매로 소개하였으며,<sup>11)</sup> 1925년에는 대표적인 불교지식인으로 활동한 無能居士 李能和도 1914년의 조사자료를 근거로 당시의 현존 경판수량이 81,240매(중복판 121매 포함)이며 결판이 18매라는 기존 수량을 수용하였다.<sup>12)</sup> 일제연구자들의 상당수도 1914년 해인사대장경판 조사 때의 수량을 받아들였다. 식민주의 역사·

6) 이 때 발견된 중복판 121매는 경판의 경전종류를 구체적으로 밝혀두지 않았다(小田幹治郎·寺內正毅, 『高麗板大藏經印刷顯末(1915)』, 東山 泉湧寺, 1923, 2쪽). 그런데 해인사대장경판에는 현재 三藏 不空이 한역한 『大乘瑜伽金 性海曼殊室利千臂千鉢大教王經』 10권이 溪함 및 雞함으로 중복되어 있으며, 溪함이 126판이고 雞함이 121판이므로 중복판 121매는 雞함의 121판이라 할 수 있다.

7) 小田幹治郎·寺內正毅, 위의 보고서, 1~4쪽.

8) 『大藏經의 由來』(『每日申報』 1915년 04월 01일 4면 : 한국언론재단).

9) 雲阜 金一字, 『乾鳳寺燒身臺石塔新築記』, 『朝鮮佛教叢報』 5, 삼십본산연합사무소, 1917, 54~55쪽.

10) 1910년 4월 統監府의 명령으로 宮內府의 사무관 무라카미(村上龍佑)가 해인사대장경판의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그 다음 달 『海印寺大藏經版調査報告書』를 제출하였다고 한다(池內宏, 『高麗朝の大藏經(上·下)』, 『東洋學報』 13-3·14-1, 1923·1924 ; 『滿鮮史研究』 中世2, 1937, 514쪽).

11) 金雲阜, 『海印寺와 大藏經』, 『朝鮮佛教叢報』 6, 삼십본산연합사무소, 1917, 3~4쪽.

12) 無能居士, 『李朝佛敎史(八) : 第五章 高麗雕造大藏經板의 考證』, 『佛敎』 8, 1925, 37쪽.

불교학자로 활동하면서 1920년대 초기까지 해인사대장경판의 연구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이케우치 히로시(池内宏)는 舊韓國政府와 조선총독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인사대장경판의 경판 수량이 81,240매(중복경판 121매 포함)이며, 결판이 18매라 하여 전체 수량을 81,258매로 소개하였다.<sup>153)</sup> 滿洲國 황제 푸이(溥儀)의 요청으로 1937년 조선총독부가 주도한 인경불사를 총괄한 京城帝國大學의 교수 다카하시 도오루(高橋亨)도 1936년 경판수량을 사전에 전수 조사하면서 81,258매로 파악하였다.<sup>144)</sup>

이 수량은 1934년 조선총독부가 해인사대장경판을 보물로 지정할 때에도 반영된 듯하다. 해인사대장경판은 1933년 조선총독부령 제137호로 공포<sup>155)</sup>된 「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을 근거로 1934년 5월 ‘해인사대장경’이라는 명칭으로 典籍書跡文書 가운데 유일하게 보물로 지정되었다.<sup>16)</sup> 1934년의 보물 지정 때에는 해인사대장경판의 전체 수량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서도 1914년의 조사 수량과 범위였을 개연성이 높다.

現今 陝川郡 海印寺에 藏置되어 있는 大藏經이 이것이다. 이 大藏經은 高宗 24년(서기 1237년)에 江華에서 始役하여 16년간의 전력으로써 葉葉致誠하고 字字苦心한 誠力의 結晶으로 總計 81,258板 6,529卷이니 世俗사람이 소위 八萬大藏經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大藏經의 板葉이 八萬枚가 넘는 가답이다.<sup>17)</sup>

해인사대장경판이 보물로 지정된 같은 해 11월의 논설 내용에서는 해인사대장경판의 수량을 81,258매로 소개하고 있으며, 이 수량은 1914년의 조사수량과 일치한다. 이로써 1934년의 보물 지정 때도 해인사대장경판의 수량은 81,258판으로 지정되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1937년의 언론보도에서도 해인사대장경판의 수량을 81,258매라 하였으며,<sup>18)</sup> 1940년의 글에서도 “國刊 판본 수는 81,258枚에 經部秩數가 1,512部요 經卷數는 355권”<sup>19)</sup>이라 하는 등 그 수량

153) 池内宏, 「高麗朝の大藏經(下)」, 『東洋學報』 14-1, 1924; 앞의 책, 1937, 576~577쪽.

144) 高橋亨, 앞의 논문, 1951, 214~216쪽.

155) 「通牒：國有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處分ニ關スル件」(『朝鮮總督府官報』 2105호, 1934.01.19).

16) 「燦爛한 半萬年の 文化를 자랑하는 古蹟 國寶二百五十二點 萬歲에 保存을 決定 寶物二百十古蹟廿一 天然物廿一點 朝鮮寶物古蹟保存會서」(『東亞日報』 1934년 05월 03일 02면).

17) 金泰洽, 「논설：朝鮮佛敎의 功過論」, 『개벽』 신간 1호, 1934년 11월 01일.

18) 「半島二千年の文化を秘むる 八萬大藏經：滿洲國皇帝の御懇望から 近く總督府で印刷」(『京城日報』 1937년 09월 17일).

19) 李箕永, 「海印寺 紀行」, 『三千里』 12권 6호, 三千里社, 1940년 06월 01일, 89쪽(국사편찬위원

은 1930년대 후반과 1940년대 초반까지 81,258판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해방 이후에는 81,658매,<sup>20)</sup> 86,686매<sup>21)</sup> 등 다양하게 파악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해인사대장경판 등과 관련된 기존 연구성과를 정리하여 1959년에 발표된 글에서는 高宗版(海印寺版)이 1,511종 81,137매(중복 121매 제외)라 하였으며,<sup>22)</sup> 1968년의 글에서도 해인사대장경판의 수량을 81,258판(보유판과 중복판 121판 포함)으로 파악하였다.<sup>23)</sup> 그러다가 동일 연구자가 1977년의 글에서는 “우리의 國寶 32號 大藏經板은 모두 81,332枚이며, 그 聖寶가 海印寺 大藏經殿에 奉安되어 있다. 이 聖寶 經板 속엔 正藏과 副藏이 있다. 正藏이 78,500枚이요, 副藏이 2,740枚이다. 이 81,332板 中엔 92板(1915년 보각경판 7판과 1937년 보각경판 17판 포함)이 二重되어 있다”<sup>24)</sup>라 하면서 해인사대장경판의 수량을 중복경판 92판까지 포함하여 81,332판으로 정리하였다. 1977년의 글에서는 1968년의 글과 비교하여 74판이나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해인사대장경판의 전체수량은 1914년 조선총독부의 전수조사로 알려진 81,258판이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불교지식인들이나 일제 식민주의 연구자들의 대부분에게 일반적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해방 이후에도 상당수의 연구에서 그대로 이어지게 되었다. 1910년 궁내부의 조사 수량인 86,686매, 1970년대 81,332판(중복경판 92판 포함) 등과 같은 견해도 제시되기도 하였으나, 이들 견해는 크게 주목받지 못한 듯하다.<sup>25)</sup> 때문에 1962년 국보 제32호 해인사대장경판의 수량은 1914년의 전수조사로 알려진 81,258판을 근거로 지정되었던 것이다.

회/한국사데이터베이스/한국근현대잡지자료/삼천리).

20) 宋道永, 「八萬大藏經盜難秘話 : 特히 國寶의 保存問題에 關하여」, 『경향신문』 1947년 04월 10일 04면.

21) 趙明基, 「학술 : 國寶 「八萬大藏經」의 由來—그 價値와 保管에 對해서」, 『東亞日報』 1961년 04월 29일 4면. 86,686매는 1910년 宮內府에서 조사한 수량으로 金一宇가 소개하였다(金雲鶴, 앞의 글, 1917, 3~4쪽).

22) 제외된 중복판 121매를 합하면 81,258매이다(朴泳洙, 「高麗大藏經版의 研究」, 『佛敎學論文集』, 白性郁博士頌壽紀念, 동국문화사, 1959, 430쪽). 이 수량은 와야마 히로시게(和山博重) 또는 朴奉石·朴華라고도 朴泳洙가 1943년 7~8월 해인사대장경판을 조사한 이후, 1944년의 글에서도 이미 소개하였다(和山博重, 「伽倻山海印寺經板について(上)」, 『文獻報國』 10-3, 朝鮮總督府圖書館, 1944., 92쪽).

23) 徐首生, 「伽倻山 海印寺 八萬大藏經 研究(1)」, 『慶大論文集』 12, 경북대, 1968, 120·142~143쪽.

24) 徐首生, 「大藏經의 二重板과 補遺板 研究」, 『東洋文化研究』 4, 경북대 동양문화연구소, 1977, 57~59쪽.

25) 전체 수량이 중복경판 92판을 포함하여 81,332판으로 조사된 경우에는 중복경판 등에서 오류가 확인된다(최영호 외, 『국보 제32호 합천 海印寺大藏經板 중복판 조사용역사업 보고서』, 법보종찰 해인사·합천군·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5, 4~5·12~14쪽).

1962년 국보 제32호 지정 때의 수량은 기존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던 조사 자료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당시로는 유효성을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1960년대는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적인 환경으로 인해 해인사대장경판의 전수조사가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학술적인 내용이나 역량도 충분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때문에 당시에는 기존의 조사결과나 연구성과를 반영하여 국보 제32호 해인사대장경판의 수량을 지정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이후의 조사결과에서는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었다. 1999~2008년 ‘해인사고려대장경 디지털영상화 및 기초자료 데이터베이스화사업’에서 해인사대장경판의 전체 수량은 중복분류경판 108판을 포함하여 81,350판으로 확대·조사되었다. 이에 2012~2013년에는 해인사대장경판의 전체 수량을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보 제32호 해인사대장경판 중복판 조사용역사업’이 수행되었으며, 이 조사결과에서도 일부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해인사대장경판에 포함된 중복분류경판이 108판에서 110판으로 확대되었던 것이다. 특히 해인사대장경판 가운데 소위 사간경판 1판이 확인되고, 이와 반대로 사간경판 가운데 해인사대장경판 1판이 발견되었다. 이에 해인사대장경판에 포함된 전체 경판 가운데 사간경판의 포함유무, 그리고 사간경판 가운데 해인사대장경판의 포함유무 등을 확인하는 조사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에는 ‘해인사 사간판 내 대장경판 중복 여부 조사용역사업’이 수행되었다. 조사결과에서는 다행히 사간경판의 전체 6,025판 가운데 해인사대장경판으로 추가·편입될 수 있는 개별경판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조사과정에서는 개별 중복경판 2판(『예념미타도량참법』 권 1, 제17·18장 및 권2, 제4·5장)과 특정 경전종류의 중복경판 121판(『대승유가 금강성해만수실리천비천발대교왕경』 권10, 雜合)이 다시 확인되었다. 해인사 사간경판 가운데 해인사대장경판과 경전이름·한역정보가 일치하는 경전종류 9종<sup>26)</sup>의 개별경판들을 상호 대조하는 과정에서 개별 중복경판 등이 추가로 발견되었다.

이러한 2차례의 조사사업은 조사경위와 배경 및 대상에서 일정한 차이를 보이면서도 조사목적은 동일하다. 해인사대장경판의 전체 수량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원천자료의 확보라는 동일한 목적에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2차례의

<sup>26)</sup> 9종의 경전은 『대방광불화엄경(貞元本)』, 『대방광불화엄경(晉本)』, 『대방광불화엄경(周本)』, 『묘법연화경』, 『대승입능가경』, 『약사유리광칠불본원공덕경』, 『금강반야바라밀경』, 『금광명경』, 『예념미타도량참법』 등이다.

조사사업에서는 다양한 분석지표를 활용하여 여러 분석단계를 거치면서 관련 자료를 객관적으로 진단하였다.

2012~2013년의 조사사업에는 개별 중복경관의 조성·보각시기, 그리고 원판 및 후대 보각경관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해인사대장경판 가운데 중복경관에 대한 기존 연구성과와 역사·문화적인 자료를 검토하고 조사방법을 설정한 이후, ①조사대상의 중복분류경관 목록확정→②원판분류경관의 확정→③중복분류경관 및 원판분류경관의 전체 범위 확정→④중복분류경관 및 원판분류경관의 중복현황 확인→⑤중복분류경관 및 원판분류경관의 개별경관 분석→⑥중복분류경관 및 원판분류경관의 조성·보각시기 종합적 분석 등과 같은 조사·분석단계를 거쳤다. 해당 개별항목은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①조사대상의 중복분류경관 목록을 새롭게 조정·확정하였다. 먼저, 조사대상 개별 중복경관의 수량을 확대 조정하여 목록을 확정하였다. 2012~2013년의 조사사업에서는 중복분류경관의 분석대상이 애초 108판이었다. 그런데 조사사업의 수행과정에서는 애초 확정된 108판 가운데 1판 양면의 중복분류경관이 사간경판의 『大方廣佛華嚴經隨疏演義抄』로 확인되면서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어 107판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다가 새로운 중복분류경관 3종 3판 5면이 추가되면서 분석대상은 110판 178면으로 확대되었다. 『出曜經』 권25, 제17장(단면)을 비롯하여 『釋華嚴旨歸章圓通鈔』 권10, 제9·10장과 소위 『大藏經補遺目錄』(이하 『보유목록』) 1판 양면 등 3판 5면을 추가하여 조사대상의 개별 중복분류경관을 110판으로 삼고, 조사목록을 새로 확정하였다.

다음으로, 목록의 확정과정에서는 다양한 분석지표를 활용하여 객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였다. 중복분류경관의 실체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 해당 개별경관의 권제·판제에 새겨진 경전이름·합차·권차·장차 등 서지학적 기본정보를 일차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런데 110판 178면의 중복분류경관 가운데 21판 28면의 경우는 권차·장차 등이 마모·훼손되어 서지학적 기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본문 내용과 해당 원문의 行字 배열위치 등에 대한 일치여부를 개별 경판마다 세밀하게 대조·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존연구의 오류도 바로 잡는 동시에 해당 개별경관의 형태서지학적 기본정보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 개별 중복경관의 목록은 객관적인 기준자료를 근거로 순차를 새롭게 조정하였다. 『大藏目錄』 3권과 소위 『보유목록』 1판 양면을 기준지표로 삼아 조사목록의 순서를 새로 조정하였다. 기존연구에서는 중복경관의 순차를 일관된 원칙도 없이 매긴 경우도 상당수 발견되어 이후의 연구에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때문에 2012~2013년의 조사사업에서는 『대장목록』과 『보유목록』에 편입된 경전이름·함차·권차·장차 등을 기준지표로 삼아 조사대상의 순차를 새롭게 조정·배열하였다. 이로써 조사목록에서는 『대반야바라밀다경』 권2, 제1·2장이 가장 첫머리에, 『보유목록』이 가장 마지막으로 각각 자리잡게 되었다.

②중복분류경판과 짝을 이루는 해당 원판분류경판도 조사대상으로 포함시켰다. 110판 178면의 중복분류경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그와 짝을 이루는 해당 원판분류경판을 비교·검토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해당 원판분류경판에는 원판과 함께 후대의 보각경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원판분류경판에는 중복분류경판과 비교·분석할 수 있는 원천자료를 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2012~2013년의 조사사업에서는 110판 178면의 중복분류경판과 짝을 이루는 원판분류경판을 조사하여 그 목록을 작성하고 분석대상으로 확정하였다. 해당 원판분류경판은 97판 148면으로 삼았다. 이로써 2012~2013년 조사사업의 전체적인 대상 범위를 207판 326면으로 확정하였다(③).

④중복분류경판 및 원판분류경판의 중복횟수 현황도 확인하여 조사목록의 순차를 확정하였다. 중복분류경판 및 원판분류경판의 92종 207판 326면은 2중경판으로부터 4중경판까지 다양하게 확인되었다. 이렇게 확인된 동일 경전이름·함차·권차·장차의 중복분류경판 및 원판분류경판은 한 종류로 묶어 분류한 다음, 가장 빠른 시기에 조성된 중복분류경판을 중복분류경판1, 늦은 시기에 조성·보각된 중복분류경판을 중복분류경판2·3의 순차로 각각 세분하여 배치하면서 조사목록의 순차를 확정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조사절차를 거치면서 확정된 조사목록은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분석지표·방식으로 해당 개별경판의 중복경판을 진단하여 원판 및 후대 보각경판의 기초정보, 진위여부, 조성·보각시기를 확인하였다.

2012~2013년의 조사사업에서는 207판 326면의 중복분류경판 및 원판분류경판을 92종으로 분류하여 개별경판마다 형태서지학적 형식, 경판의 각수와 보시자 및 발원문, 경판의 외형적 형태 등을 핵심적인 분석지표로 삼아 비교·검토하였으며, 개별경판의 판각기법, 장식성분의 분석자료도 보조적 분석지표로 활용하였다. 제한된 경우이지만 3D촬영 자료도 분석지표로 활용하였다. 형태서지학적인 분석지표로는 해당 개별 중복분류경판 및 원판분류경판의 匡郭 및 界線 유무, 본문의 내용과 서체 및 行字 배열위치, 권제·판제의 행자 배열위치와 구성형식 및 글자형태 등을 핵심적인 대상으로 삼았다. 이와 동시에 개별경판에 새겨진 刻手·보시자의 활동시기와 함께 조성기록(刊記)이나 발원문의 역사·

문화적인 기본정보 등도 세밀하게 분석하였다. 경관의 외형적인 형태분석에서는 중복분류경관 및 원판분류경관의 해당 개별경관을 일본 교토(京都) 오오타니(大谷)대학 소장의 인경본과 사진 겹치기의 방식으로 본문의 행자 배열위치와 함께 광곽(특히 상·하란) 평행선의 굴곡정도에 대한 일치여부도 비교·검토하였으며, 경관의 외형적 색(목재의 수종 포함)이나 상·하 부분의 판각형태도 진단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별경관을 장식한 마구리 및 장식의 형태, 장식의 금속성분, 경관 본문글자의 마구리 형태, 개별경관의 상·하변 폭과 광곽 평면형태 등도 분석지표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분석지표·방식은 2015년의 조사사업에서도 상당 부분을 수용하여 적용하였다. 개별경관의 권수제·권미제, 한역정보·저자, 판제·행자수·광곽·계선 등과 같은 형태서지학적인 기본정보, 본문내용, 각수·간행정보, 경관의 외형적인 형태(마구리·장식 포함) 등과 같은 다양한 분석지표를 활용하였다. 이들 분석지표는 해인사대장경판 및 사간경판 편입의 개별경관이 대부분 상호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경관 종류의 구분에서 객관성을 가진다. 특히 해인사대장경판 및 사간경판 편입의 개별경관에 새겨진 권수제와 판제의 표기·구성형태는 『예념미타도량참법』 10권을 제외하면 뚜렷한 차이를 보이므로, 경관 종류의 분류과정에서 핵심적인 분석지표로 적극 활용하였다.

그러면서 2015년 조사사업의 분석절차는 ①사간판에 편입된 개별경관 전체의 형태서지학적 기본정보를 검토·정리→②해당 개별경관을 경전 종류별로 분류하여 사간경판 전체의 목록을 작성→③해인사대장경판 편입경전의 목록과 비교·검토하여 일치여부를 확인→④경전이름과 한역정보가 상호 일치하는 경전 종류와 개별경관을 선별→⑤상호 일치하는 경전·개별 경관의 형태서지학적 기본정보 등을 정밀하게 비교·분석→⑥사간경판 가운데 해인사대장경판으로의 편입여부를 확정하는 단계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해인사 사간경판 가운데 해인사대장경판으로 다시 편입될 수 있는 개별경관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해인사대장경판의 개별경관의 중복경관 2판과 특정 경전종류의 중복경관 1종 121판이 다시 확인되었다. 때문에 해인사대장경판 가운데 서로 중복되는 경전종류 및 개별경관을 확인하는 분석절차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중복 경전종류의 경우는 ①해인사대장경판 가운데 경전이름과 한역정보가 일치하는 경전종류를 선별→②해당 경전종류의 형태서지학적 기본정보 등을 정밀하게 비교·검토→③중복여부를 확인→④원판 및 보각경판의 역사·문화적 성격을 검토하였다. 추가 발견된 개별 중복경판의 경우는 ①해당 경관의 판제 및 본문내용을 비교·검토→②해당 원판과의 중복여부를 확인→③해당 원판본

류경관 및 중복분류경관의 조성·보각시기를 검토하여 원판과 후대 보각경관의 여부를 확인→ ④분 조사사업에서 추가 조사된 2판 4면의 경판과 함께 2012~2013년 이미 조사된 개별 중복경관의 원판분류경관 및 중복분류경관을 포함하여 211판 330면을 종합·정리하였다([부록 1] 참조).

2012~2013년의 조사사업에서는 해인사 장경판전 소장의 경판과 사진자료 및 3D자료, 팔만대장경연구원의 디지털사진자료(<http://i80000.or.kr>), 일본 교토 오오타니(大谷)대학 도서관 소장 인경본, 月精寺(지금의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 소장 인경본 사진자료(고려대장경연구소 홈페이지 제공), 동아대학교 함진재 소장의 인경본 등과 같이 다양한 원천자료를 활용하였다. 2015년의 조사사업에서는 해인사 팔만대장경연구원의 디지털 사진자료와 더불어 동아대학교 함진재 소장의 인경본, 문화재청 소장 자료 등을 원천자료로 활용하였다.

### Ⅲ. 중복경관의 현황과 보각경관의 보각성격

2012~2013년 및 2015년의 조사사업에서는 도출결과의 객관적인 신뢰성과 정밀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다양한 분석절차 및 분석지표·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로써 중복경관의 수량과 실체, 사간경관의 수량과 기본정보 등에 대한 기존 오류를 바로잡아 새롭게 정리하였으며, 여러 사실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가운데 2차례의 조사사업 목적과 직결되는 내용으로는 해인사대장경판의 전체 수량을 새롭게 조정·확정하는 원천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중복경관의 현황과 보각경관의 성격이 주목된다.<sup>277</sup>

2012~2013년을 이어 2015년까지 확인된 개별경관의 중복경관 94종<sup>278</sup> 211판 330면, 그리고 특정 경전종류의 중복경관 1종 247판을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

<sup>277</sup> 이들 중복경관 가운데 개별경관의 중복현황은 [부록 1 : 현존 해인사대장경판의 개별 중복경관 목록]과 같이 정리되었다. 본 부록은 최근의 관련 보고서(최영호 외, 『海印寺 寺刊板 内 大藏經板 중복여부 조사용역사업 보고서』, 문화재청·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석당학술원, 2015, 319~325쪽)를 재인용하였다.

<sup>278</sup> 해인사대장경판 가운데 현재까지 확인된 개별 중복경관의 종류는 원판을 기준으로 96종이다. 원판을 기준으로 분류한 [부록 1 : 현존 해인사대장경판의 개별 중복경관 목록] 가운데 순차 88·90의 『화엄경탐현기』 2종 경우는 반복적인 소개를 피하기 위해 후대 보각경판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때문에 순차 88·90의 『화엄경탐현기』 2종은 원판을 기준으로 분리하면, 『화엄경탐현기』 권1의 제26장, 권18의 제25장, 권15의 제35장, 권16의 제32장의 4종으로 2종이 더 늘어나므로 전체가 96종으로 확대된다.

하여 중복경판의 현황과 후대 보각경판의 성격을 정리하였다. 첫 번째로, 이들 중복경판의 중복횟수를 기준으로 중복경판의 현황을 정리하였다. 개별경판의 중복경판 94종 211판 330면은 이중·3중·4중으로 다양하게 조성된 사례들이 발견되었으며,<sup>29)</sup> 특정 경전종류의 중복경판은 이중으로 확인되었다. 2012~2013년의 조사사업에서는 개별경판의 이중경판이 75종, 3중경판이 17종, 4중경판이 2종으로 각각 조사되었다. 그러다가 2015년의 조사사업에서는 『禮念彌陀道場懺法』 권1, 제17·18장 및 권2, 제4·5장 등의 2종이 이중경판으로 확인되면서 지금까지 개별경판의 이중경판은 77종으로 확대·정리되었다. 이 수량에다가 특정 경전종류의 중복경판을 합치면 이중경판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

두 번째로, 원판과 후대 보각경판의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수량을 정리하였다. 개별 중복경판 211판 가운데 원판은 93판이며,<sup>30)</sup> 후대 보각경판은 118판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면서 개별경판의 중복경판 가운데 포함된 원판과 후대 보각경판의 수량은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보인다. 그 연유는 특정 개별경판에 대해 후대 보각횟수가 3~4차례까지 반복되는 현상 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2015년의 조사사업에서는 특정 경전종류의 중복경판인 『大乘瑜伽金性海曼殊室利千臂千鉢大教王經』 10권의 溪함 및 雞함 가운데 시기적으로 늦게 새긴 溪함의 126판<sup>31)</sup>을 원판으로 분류하였다. 溪함은 雞함의 오류를 상당 부분 바로잡아 다시 조성하였고,<sup>32)</sup> 우왕 7년 인출된 이후 일본 교토 오오타니(大谷)

29) 『대반야바라밀다경』 권144, 제19장 및 권153, 제21장은 이중경판으로 분류하면서도, 이들 경판의 뒷면과 앞면에 각각 판각된 권144, 제23장 및 권153, 제20장의 경우는 3중판에도 포함시켰다. 때문에 96종으로 2종이 겹쳐 산정되므로 전체는 94종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위에 언급된 『화엄경탐현기』 2종의 경우와 연계되지 않은 것이다.

30) 원판에는 『화엄경탐현기』 권1의 제36장 및 권18의 제25장, 권15의 제35장 및 권16의 제32장과 같은 원판분류경판1·2의 총4판 4면, 그리고 조선 고종 2년 조성의 『보유목록』 1판 양면을 포함하였다. 원판의 수량 가운데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는 13세기 중엽 조성 원판의 3판은 93판에 포함하지 않았다. 한편 개별 중복경판의 원판은 중복분류경판에서 50판, 원판분류경판에서 43판이 각각 확인되었다.

31) 『대승유가금강성해만수실리천비천발대교왕경』 10권의 溪함 및 雞함 경판은 高麗國大藏都監(이하 대장도감)과 高麗國分司大藏都監(이하 분사도감)이 운영된 시기에 조성되었다는 사실에서 유사하다. 그러면서 조성시기와 판각공간은 차이를 보인다. 溪함의 경판은 권2·3이 고종 32년(1245 : 을사세), 권1·4·5·6·8·9·10이 같은 왕 33년(병오세), 권7이 같은 왕 34년(정미세)에 각각 대장도감에서 조성되었다. 이에 비해 雞함의 권2·7은 같은 왕 31년(갑진세) 및 같은 왕 32년 대장도감에서 조성되었으나, 권1·3·4·5·6·8·9·10의 경우는 같은 왕 31년 분사도감에서 조성되었다. 溪함 및 雞함의 경판은 조성시기·공간에서 차이를 보이며, 개별 권별의 조성시기는 雞함의 경판이 溪함의 경판보다 앞서고 溪함이 늦다(『대승유가금강성해만수실리천비천발대교왕경』 10권의 溪·雞함 : 해인사 팔만대장경연구원 디지털 사진 및 동아대학교 함진재 소장 인경본).

대학에 소장된 인경본에도 溪함의 경전만 포함되어 있으면서 雞함이 확인되지 않으며,<sup>33)</sup> 특히 해당 경전이름 및 函名 등이 『대장목록』에 편입되어 있는지에 대한 유무를 기준으로 삼을 때 溪함을 원판으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종 35년(1248 : 무신년) 대장도감에서 조성된 『大藏目錄』 권하, 제19장에는 ‘溪함은 10권이 편입되어 있으며 종이 11첩 18장이 들어간대[溪函入十卷 入紙十一牒十八張]. 『천비천발만수실리경』은 10권으로 같은 한역이다[千臂千鉢曼殊室利經十卷 同譯(大唐大弘教沙門金剛智譯)]’라 하여 『대승유가금강성해만수실리천비천발대교왕경』 10권의 溪함이 편입되어 있다. 이에 비해 『대장목록』 권하, 제38장에는 ‘雞함에는 10권이 편입되며 종이 10첩 2장이 들어간대[雞函入十卷 入紙十牒二張]. 『속일체경음의』 10권으로 사문 희린이 찬집하였다[續一切經音義十卷 沙門希麟撰]’라 하여 雞함에 『속일체경음의』 10권이 편입되어 있다. 때문에 『대승유가금강성해만수실리천비천발대교왕경』 溪함의 126판을 원판으로 분류하였다.<sup>34)</sup>

마지막으로, 개별경판의 중복경판 가운데 원판과 후대 보각경판의 조성·보각시기도 정리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후대 보각경판의 성격도 함께 정리하였다. 개별경판 중복경판의 원판 및 보각경판은 고려 고종 23~38년부터 1937년까지 최소 8~10차례에 걸쳐 조성되거나 보각되었다. 개별경판의 중복경판 가운데 원판은 13세기 중엽에 조성된 90판을 비롯하여 연산군 9년(1503)에 조성된 2판, 조선 고종 2년(1865)에 판각된 1판 등 93판이 2015년까지 확인된다. 원판은 3차례에 걸쳐 조성되었던 것이다. 연산군 9년 조성의 원판 2판은 『예념미타도량참법』 권1, 제17·18장 및 권2, 제4·5장이며, 조선 고종 2년 조성의 원판은 당시 해인사대장경판의 인경불사에 참여한 海冥 壯雄이 인경불사를 마친 다음, 향후 교정과 인출불사의 편의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조성한 『보유목록』 1판 양면이다.<sup>35)</sup>

32) 金潤坤, 「高麗大藏經의 東亞大本과 彫成主體에 대한 考察」, 『石堂論叢』 24, 동아대 석당학술원, 1999, 77~83쪽; 『고려대장경의 새로운 이해』, 불교시대사, 2002.

33) 국립문화재연구소, 『海外典籍文化財調査目錄』, 日本 大谷大學 所藏 高麗大藏經, 2008, 306쪽.

34) 雞함의 121판은 1914년의 조사사업 때도 이미 溪함의 중복경판으로 분류된 듯하다.

35) “을축년(1865 : 조선 고종 2년) 나는 이 곳에 있으면서 해인사대장경의 인경불사에 참여하였다. 해인사대장경판을 열람하고 교정하였는데, 『종경록』 등 15부 231권이 목록(『대장목록』) 가운데 들어있지 않았다. 경판의 문장 단락 머리에도 어떤 함차의 천자문 글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하여 인출하는 사람은 인경이 어려웠으며, 교정하는 사람은 교정이 힘들었다. 그러므로 인출불사를 마친 다음……옛 목록(『대장목록』)에 누락된 것은 이미 보충하였다……5월 하순 해명 장옹이 글을 짓고 비구 희일이 글을 쓰다[歲乙丑, 余在此, 參印經事矣. 閱板校訂, 宗鏡錄 十五部二百三十一卷錄中不參. 而亦板章頭不書某字. 印者印難, 校者校力.]

후대 보각경판 118판의 보각사업도 여러 차례에 걸쳐 단속적으로 이루어졌다. 해인사대장경판 가운데 포함된 후대 보각경판은 ①일본 오오타니대학 소장 인경본이 인출된 고려 우왕 7년 이후부터 刊經都監이 운영된 세조 7년(1461)~성종 2년(1471)의 당시나 그 전후 사이에 보각된 30판 47면을 비롯하여 ②戊辰年の 2판 4면, ③乙酉年の 1판 양면,<sup>367</sup> ④조선시대의 34판 58면, ⑤조선후기의 15판 20면,<sup>377</sup> ⑥1915년의 18판 26면, ⑦1937년의 18판 31면<sup>387</sup>이 2015년 현재까지 확인된다. 보각佛事는 1915년이나 1937년과 같이 특정 시기에 수행된 해인사대장경판의 인출불사 때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인출불사의 이후,<sup>397</sup> 또는 인출불사와 상관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시기에도 보각불사가 이루어진 듯하다. 이처럼 보각불사는 최소 7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므로, 특정 시기의 보각경판에는 해당 시기의 목재가공 기술능력 및 목판출판인쇄술의 역량, 刻手 및 보시자의 人名·法名, 사상적 경향, 현실조건 등과 같이 다양한 역사·문화적인 성격이 담겨지게 되었다. 이로써 2012~2013년 및 2015년의 조사사업에서는 이들 보각경판에 함축된 다양한 역사·문화적인 성격을 중요 분석지표로 활용하여 보각시기를 정리할 수 있었다. 보각경판의 보각시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위에서 소개되었듯이 해당 보각경판에 새겨져 있는 다양한 기본정보를 기초적으로 활용하였으며, 특히 경판의 외형적 형태와 색(목재의 수종 포함), 각수·보시자의 활동시기, 간행정보(刊記) 및 발원문의 기본정보 등을 세밀하게 조사하여 분석지표로 활용하였다.

후대 보각경판이 보각된 배경도 다양하다. 우선, 원판의 훼손·마모에 따른 보각 사례이다. 보각배경의 대부분은 이 사례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유실된 특정 원판의 보각사례이다. 이 사례에 해당하는 보각사례는 을유년 10월 각수 光玄?

故印事畢後……旧錄漏者已補……五月下浣海冥壯雄誌 比丘希一書”(『보유목록』 뒷면 : 해인사 팔만대장경연구원 디지털사진 및 동아대학교 함진재 소장 인경본).

<sup>367</sup> 무진년과 을유년의 구체적인 연도를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면서 무진년의 경우는 우왕 7년 이후부터 간경도감의 운영 당시나 그 전후 사이인 우왕 14년, 세종 30년(1448), 중종 3년(1508) 가운데 특정 시기일 수도 있다.

<sup>377</sup> 조선시대와 조선후기의 보각경판은 조선시대로 묶어 유형화할 수 있다. 그런데 해당 보각경판의 외형적 색과 형태(광곽의 사주단변에 있는 평면선 부분의 형태 포함), 각수와 보시자 및 발원문의 표기형태 등에서 상호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별도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조선후기 보각경판 가운데는 광무 10년(1906)에 보각된 경판도 포함되어 있을 개연성이 높다.

<sup>387</sup> 1937년의 보각경판 18판 31면은 1915년 보각경판의 18판 26면 전체를 다시 보각하여 중복되며, 그 나머지 6면은 다른 경판을 새로 보각하였다.

<sup>397</sup> 광무 2년의 인출불사 이후 광무 10년에 해인사대장경판의 보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大藏經板修補 文』, 光武十年丙午四月日從二品前漢城判尹朴昌善謹跋 : 해인사 팔만대장경연구원 디지털사진 및 동아대학교 함진재 소장 인경본).

이 직접 보각한 1판 2면의 『釋華嚴教分記圓通鈔』 권10, 제9·10卜<sup>40)</sup>으로, 보각불사 이후 원판이 다시 발견되어 이중경판이 되기도 하였다. 그 다음으로, 후대 보각경판에 대한 추가적인 보각 사례이다. 1915년의 보각경판을 1937년에 다시 보각한 보각경판의 대부분이 이 사례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경판의 훼손·마모가 거의 없는 원판을 보각한 사례이다. 이 사례 가운데는 부모와 가족의 공덕을 기원하는 목적의식도 함께 새겨져 있기도 하다.

#### IV. 맺음말 : 보각경판의 전체 수량으로의 편입방안

이상에서 국보 제32호 해인사대장경판의 전체 수량을 객관적으로 다시 조정하는 과정에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해인사대장경판의 중복·보각경판 실체와 성격을 정리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해인사대장경판의 전체 수량이 기존에 81,258판으로 확정되었다가 이후 81,350판(『內典隨函音疏』 2판 포함하여 81,352판)으로 확대·조사된 경위도 함께 정리하였다. 지금까지 언급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인사대장경판의 전체 수량은 1914년 조선총독부의 전수조사에서 81,258판으로 조사·정리된 이후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불교지식인들이나 일제 식민주의 연구자들의 대부분에게 일반적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해방 이후에도 다양한 연구영역에서 그대로 수용되었다. 이에 1962년 해인사대장경판이 국보 제32호로 지정되면서 그 전체 수량도 81,258판으로 확정되었다. 그러다가 1999~2008년의 조사사업에서 전체 수량이 81,350판으로 확대되었으며, 2012~2013년 및 2015년에는 해인사대장경판의 전체 수량을 새롭게 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차례의 조사사업이 이루어졌다.

<sup>40)</sup> 을유년 10월 보각한 『釋華嚴教分記 通鈔』 권10, 9·10卜의 각수는 무진년 『大般若波羅蜜多經』 권106의 3~4장 등을 다시 판각한 각수 海志로 잘못 서술하였으나, 光玄?이 옳으므로 바로잡는다(최영호 외, 『국보 제32호 합천 海印寺大藏經板 중복판 조사용역사업 보고서』, 법보종찰 해인사·합천군·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5, 459~463·503·518쪽). 한편 을유년에 보각된 『석화엄교분기원통초』 권10, 10卜의 우변 밖에는 '정축년 육지로 나올 때 이 경판을 잃어 버렸다. 지식 도원과 함께 같이 발원하고 개판하여 입상하였다. 을유년 10월 모일 수좌 충현[丁丑年出陸時此闕失與知識道元同/願開板入上乙酉十月日首座冲玄]'이라는 보각정보에서 원판의 일시적인 유실로 보각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정보는 金包光(金映濤)선생이 해인사의 雜板(소위 사간경판)을 정리하여 목록을 작성할 때 발견하였다고 한다(朴泳洙, 앞의 논문, 1959, 436~437쪽).

2차례의 조사사업에서는 도출 결과의 객관적인 신뢰성과 정밀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분석절차와 분석지표·방법을 활용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중복경관 및 시간경관의 기본정보 등에 대한 기존 오류를 바로잡아 새롭게 정리하였으며, 여러 사실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가운데 2차례의 조사사업 목적과 직결되는 내용으로 해인사대장경판에 포함된 중복경관의 현황과 보각경관의 성격에 한정한 분석결과도 도출되었다. 2015년까지 해인사대장경판에 포함된 개별경관의 중복경관 가운데 원판은 93판이며, 후대 보각경판은 118판으로 조사·정리되었다. 원판 가운데는 13세기 중엽에 조성된 90판을 비롯하여 연산군 9년에 조성된 2판, 조선 고종 2년에 조성된 1판도 포함되어 있다. 보각경판은 일본 교토 오오타니대학 소장 인경본이 인출된 고려 우왕 7년 이후부터 刊經都監의 운영 당시나 그 전후 사이에 보각된 30판 47면을 비롯하여 戊辰年의 2판 4면, 乙酉年의 1판 양면, 조선시대의 34판 58면, 조선후기의 15판 20면, 1915년의 18판 26면, 1937년의 18판 31면으로 정리되었다. 이러한 보각경판에는 해당 당대의 다양한 성격이 담겨져 있으므로 개별 경관의 역사·문화적인 실체를 연구하는 중요한 원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동일 경전종류가 중복된 사례도 다시 확인하였다. 『大乘瑜伽金 性海曼殊室利千臂千鉢大教王經』 10권의 溪함 126판 및 雞함 121판이다. 溪함의 경우는 시기적으로 溪함보다 늦게 새겼으면서도 다양한 지표를 근거로 원판으로 분류하였다.

지금까지 조사·정리된 내용은 해인사대장경판의 전체 수량을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들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해인사대장경판의 전체 수량을 다시 조정하는 방안은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글에서는 현재 국보 제32호로 지정되어 있는 해인사대장경판의 기존 구성체제나 범위를 유지하면서 전체 수량을 새롭게 조정·확정하는 방안으로만 한정하여 진단하였다. 이 방안은 현재 우리의 다양한 현실조건이나 연구내용·현황을 고려할 때 현실성을 가지기 때문이다.<sup>41)</sup> 이 논의과정에서는 『내전수함음소』 2판

<sup>41)</sup> 해인사 장경판전에 소장된 전체 경판은 『대장목록』과 그 목록에 편입된 경전종류를 묶은 ‘大藏’, 『보유목록』과 그 목록에 편입된 소위 보유경판, 그리고 그 외의 경판을 묶은 시간경판으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大藏과 보유경판이 함께 국보 제32호로 지정되어 있다. 때문에 향후에는 대장을 보유경판 및 소위 시간경판을 구분하거나 3종을 함께 묶어 국가기록유산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재 이들 3종에 포함된 개별경판의 실체가 세밀하게 정리·분석되지 못한 상태이며, 분석작업은 향후 상당한 기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해인사대장경판의 전체 수량에 대한 조정 논의를 진행하였다.

의 역사·문화적 가치도 검토하면서도 경전 전체가 중복된 『대승유가금강성해만수실리천비천발대교왕경』 溪함 10권 126판과 雞함 10권 121판을 논외로 하였다. 개별경판의 중복경판에 포함된 후대 보각경판 118판과 『내전수함음소』 2판의 편입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최근에 확인된 81,350판의 수량 조정을 논의하기에 앞서 『내전수함음소』 2판의 역사·문화적 실체와 포함 근거부터 검토하였다. 2013년 보물 제1806호로 지정되어 현재 국보 제32호 해인사대장경판 등과 함께 해인사 장경판전에 보존되어 있는 『내전수함음소』 2판은 경판의 역사·문화적 성격에 따라 해인사대장경판 및 사간경판 가운데 하나의 범위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전수함음소』 2판은 『대장목록』의 개별 경전이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간경판이나 보유경판으로 분류하여 편입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해인사대장경판에 편입된 해당경전의 일부로 포함시키는 분류방식이 보다 객관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권490의 경판 2판은 13세기 중엽 『내전수함음소』의 전체 경전 500여권을 별도로 조성하면서 판각된 경판이 아니라, 『대장목록』에 편입된 특정 경전종류의 경판들 가운데 일부로 편입되어 새겨졌기 때문이다. 본 경판은 『大乘理趣六波羅蜜多經』 10권을 조성하면서 『내전수함음소』의 본문 내용 전체 가운데 권490에서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의 音義 부분만 선별적으로 채택하여 卷首題·板尾題 등을 다시 편집한 다음, 고종 32년(1245 : 을사세) 대장도감에서 조성하였던 것이다. 본 경판의 권수제 및 판미제 가운데 표기된 천자문의 함명 榘자가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의 함명 榘자와 동일하고, 제1장의 3행에는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 권10의 권수제 및 한역정보 ‘大乘理趣六波羅蜜多經卷第十/闍闍國三藏般若奉 詔譯’과도 거의 유사하게 ‘大乘理趣六波羅蜜多經一部十卷闍闍國三藏般若譯’라 표기되어 있으며, 제3장의 음의 다음 행에는 ‘이상은 『대승이취경』 1부 10권의 마지막이대[已上大乘理趣經一部十卷竟]’라 새겨진 사실 등에서 본 경판은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의 음의 부분으로 편제되어 조성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더구나 본 경판의 인경본은 광무 3년(1899) 인출불사로 인경<sup>42)</sup>된 해인사 소장 현존 인경본<sup>43)</sup>과 함께 우왕 7년에 인출되어 일본 교토 오오타니(大谷)대학에 소장된 인출본에도 해인사대장경판의 榘함에 편입·제책<sup>44)</sup>되어 있으므로, 『내전수함음소』 2판은 14세기 후기 이래

42) 徐首生, 앞의 논문, 1968, 141쪽.

43) 2014년 8월경 문화재청과 함께 국내 소장 해인사대장경판의 인경본 가운데 『내전수함음소』의 존재여부를 조사하면서 해인사 소장 인경본에서 존재 사실을 확인하였다.

44) 국립문화재연구소, 『海外典籍文化財調査目錄』, 日本 大谷大學 所藏 高麗大藏經, 2008, 374쪽.

19세기 말기까지도 이미 해인사대장경판의 桓함으로 분류·편입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내전수함음소』 권490의 2판은 해인사대장경판에 편입된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 10권의 음의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조성된 경판<sup>45)</sup>이므로, 해인사대장경판에 편입된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 10권과 함께 국보 제32호로 분류·조정하는 선택적 판단이 객관적인 근거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내전수함음소』 2판을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으로 편입하면, 2015년 현재까지 확인되는 해인사대장경판의 수량은 81,352판이 된다. 이 경판 수량 가운데는 원판과 함께 『대승유가금강성해만수실리천비천발대교왕경』 溪함 10권 126판과 雞함 10권 121판, 그리고 후대에 보완한 개별경판의 보각경판 118판도 포함되어 있다.

개별경판의 보각경판 118판에 대한 해인사대장경판으로의 포함 여부는 3가지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보각경판의 전체를 포함시키는 방안, 보각경판을 선별적으로 편입시키는 방안, 보각경판의 전체를 제외하는 방안 등이다. 이 가운데 마지막의 방안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글의 검토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후대 보각경판의 경우는 보각불사 당시의 역사·문화적인 성격과 더불어 불교계의 교학적 수준 및 출판·인쇄술의 역량이나 수공업적 능력 등 다양한 기록문화유산적 의미와 가치를 담고 있으며, 현재 국가기록유산으로 지정된 국보·보물 가운데는 후대에 특정 부분의 일부가 수리된 경우도 포함된 사례가 발견된다. 또한 2012~2013년 및 2015년의 2차례 조사사업에서는 일부의 중복경판이 새롭게 발견되었고, 1종 1판의 후대 보각경판만 현존하는 개별경판에 대한 후대 보각경판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수행되지 않았으므로 향후에 중복·보각경판이 새로 발견될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는 상태이다. 때문에 해인사대장경판 가운데 보각경판의 전체를 배제한다면 그 역사·문화적인 측면이나 다른 지정 국가기록유산 등과의 형평성 측면, 전체 수량에 대한 향후 재조정 논의

45) 『大藏目錄』 권하, 제28장에는 ‘桓函入十二卷 入紙十一牒十八張/大乘理趣六波羅蜜經十卷/[闍賓國三藏般若金剛譯]/大華嚴長者問佛那羅延力經一卷[同譯]/般若波羅蜜多心經一卷[同譯]’이라 하여 桓함에 포함된 3종의 경판 전체를 인출 때 소요되는 紙張 수량이 11첩 18장(238장)이라 하였다. 이 수량은 『내전수함음소』의 경판 수량을 제외한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 10권의 본문 경판 수량 총234면, 『대화엄장자문불나라연력경』 단권의 본문 경판 수량 총2면, 『반야바라밀다심경』 단권의 본문 경판 수량 총2면을 전체 합친 총238면과 일치한다. 때문에 『내전수함음소』의 경판은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 10권과 별개의 경판으로 조성되었을 개연성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장목록』에 포함된 특정 경전의 入紙張 수량이 해당 경전의 경판 수량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본 『내전수함음소』가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 10권과 무관하게 조성되었다고 속단하기는 어려운 듯하다. 『내전수함음소』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다른 글에서 분석할 것이다.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나머지 2가지 방안으로 제한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전문 연구자들의 일부가 지금까지 제시하고 있는 선별적 방안은 해인사대장경판의 보각경판 가운데 일제강점기의 보각경판 36판(1915년 보각경판 18판, 1937년 보각경판 18판)을 제외하여 지정하는 견해로 압축되어 있다. 이 견해는 설득력도 가진다. 일제강점기의 보각경판은 우리나라의 식민지통치기구인 조선총독부가 일본 황실의 안녕과 자신들의 외교적 목적을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인경불사를 주도하면서 보각되었으며, 현재 국가기록유산에는 일제강점기 이래 조성된 경판이 지정된 사례가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향후에는 일제강점기의 해인사대장경판 조사사업 이래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원판이 다시 발견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그러면서 전문 연구자들 가운데는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삼아 해인사대장경판에 포함된 후대 보각경판의 전체를 포괄하여 81,352판으로 지정하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우선, 일제강점기의 보각경판은 해인사대장경판 가운데 마모·훼손되었거나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몇몇의 원판을 상당 기간 동안 대체·보완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1937년의 보각경판의 경우는 해당 기준원판에 새겨진 서체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콜로타입(collotype)의 인쇄방법으로 판하본의 저본을 확보<sup>46)</sup>하였으므로, 마모·훼손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몇몇 원판을 복원할 때 중요 원천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보각佛事의 새로운 기술적 도입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일제강점기의 보각경판은 해인사대장경판의 원판보다 판각기술이나 역량이 뒤떨어지므로, 향후에는 학술연구나 개별경판의 복원과정에서 비교·분석자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 다음으로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해인사대장경판에 대한 문화정책이나 문화적 허구성 및 일제식민주의 연구자들의 이중적 인식태도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sup>47)</sup>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본 보각경판은 조선총독부의 필요성에서 보각되었으면서도 보각경판의 필사자와 각수 가운데는 당대 우리나라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등 우리의 전통적 역량도 반영되어 있으며, 판목도 우리나라에서 산출된 나무를 활용하는 등 우리의 인적·물적 자원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있다<sup>48)</sup>는 점이다.

46) 高橋亨, 앞의 논문, 1951, 215~217쪽.

47) 崔永好, 「해인사 소장 江華京板『高麗大藏經』의 일제강점기 補刻板 조성현황과 성격」, 『한국중세사연구』 40, 한국중세학회, 2014, 123~128쪽.

48) 寺內正毅, 「印大藏經跋」 제2·3장(1915년 9월 : 해인사 팔만대장경연구원 디지털사진 및 동아

이처럼 두 견해는 각각 논리적 근거를 가진다. 이러한 근거를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2가지 방안을 검토하였다. 첫 번째 방안은 해인사대장경판의 수량을 81,352판의 전체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 제시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다. 해인사대장경판의 원천자료 확보와 학술연구, 인경불사 및 보존·복원 사업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해인사대장경판의 국가기록유산으로의 분리·선별 지정에 따라 향후 발생하는 문제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차선책으로는 해인사대장경판의 전체 수량 가운데 제외되는 일제강점기의 보각경판 36판을 근대문화유산이나 경상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방안은 국가기록유산의 1건을 국보와 근대문화유산·유형문화재로 나누어 지정하면 향후의 보존·관리과정에서 번거롭고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일제강점기의 기록유산 가운데는 근대문화유산이나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도 있으므로 차선방안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의 견해에서 제시된 근거 가운데 우려되는 조성 주체·시기의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으며, 후자의 견해도 선택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해인사대장경판 81,352판 가운데 후대 보각경판 118판의 해인사대장경판 전체 수량으로의 편입여부 문제를 집중적으로 진단하였다. 3가지 방안 가운데 보각경판의 전체를 포함시키는 방안, 일제강점기의 보각경판을 제외한 나머지 보각경판을 선별적으로 편입하는 2가지 방안으로 제한하여 진단하였다. 2가지 방안은 각각 나름대로의 논리적 근거를 가진다. 그러면서 이 글에서는 기존 전문연구자들의 다양한 논리적 근거를 고려하여 해인사대장경판의 전체 수량을 81,352판으로 묶어 지정하는 방안을 최선책으로 제시하였다.

이 글이 국보 제32호 해인사대장경판의 역사·문화적인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그 전체 수량과 범위를 다시 조정·확정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밑바탕이 되길 기대한다.

■ 2016년 7월 28일 | 심사완료일 2016년 8월 23일 | 게재확정일 2016년 8월 30일 ■

---

대학교 함진재 소장 인경본); 小田幹治郎·寺内正毅, 앞의 보고서, 4·10쪽; 高橋亨, 앞의 논문, 1951, 215~216쪽; 崔永好, 앞의 논문, 2014, 104쪽.

부록 1 : 현존 해인사대장경판의 개별 중복경판 목록

순차	경판고유 코드번호	조사번호	경번호	경전이름	권차	합차	장차	조성 · 보각시기	참조
1	81243	중복1	K1	大般若波羅蜜多經	2	天	1	고종 24년(1237)	
	81244	중복2					2		
	15	원판10729					1	조선시대	
2	81245	중복3	K1	大般若波羅蜜多經	2	天	2	고종 24년(1237)	
		27					원판10741		
	22	조선시대							
3	81246	중복4	K1	大般若波羅蜜多經	5	天	1(단면)	우왕~간경도감	
	60	원판10774					1(단면)	고종 24년(1237)	
4	81247	중복5	K1	大般若波羅蜜多經	7	天	4(단면)	우왕~간경도감	
	93	원판10807					4(단면)	고종 24년(1237)	
5	81248	중복6	K1	大般若波羅蜜多經	9	天	1(단면)	조선시대	
	121	원판10835					1(단면)	고종 24년(1237)	
6	81249	중복7	K1	大般若波羅蜜多經	9	天	3(단면)	고종 24년(1237)	
	123	원판10837					3(단면)	조선후기	
7	81251	중복9	K1	大般若波羅蜜多經	10	天	12	조선시대	
		146					원판10861		
	12	고종 24년(1237)							
	13								
8	81253	중복11	K1	大般若波羅蜜多經	15	地	9	고종 24년(1237)	
	81252	중복10					10		
	221	원판10936					9	조선시대	
							10		
9	81254	중복12	K1	大般若波羅蜜多經	21	玄	13(단면)	고종 24년(1237)	
	81255	중복13					13(단면)	1937년	
	318	원판11033					13(단면)	1915년	
10	81256	중복14	K1	大般若波羅蜜多經	22	玄	16	고종 24년(1237)	
		335					원판11050		
	16	조선시대							
	17								
11	81257	중복15	K1	大般若波羅蜜多經	23	玄	21	고종 24년(1237)	
		354					원판11069		
	21	조선후기							
	22								
12	81258	중복16	K1	大般若波羅蜜多經	24	玄	15	조선시대	
		364					원판11079		
	15	고종 24년(1237)							
	16								
13	81259	중복17	K1	大般若波羅蜜多經	28	玄	11	조선시대	
		423					원판11138		
	11	고종 24년(1237)							
	12								

순차	경판고유 코드번호	조사번호	경번호	경전이름	권차	합차	장차	조성 · 보각시기	참조	
14	81260	중복18	K1	大般若波羅蜜多經	31	黃	26	고종 24년(1237)		
		27								
	81261	중복19					26	1937년		
	27									
	477	원판11192	26	1915년						
			27							
15	81262	중복20	K1	大般若波羅蜜多經	33	黃	12	1937년		
		13								
	501	원판11216	12	1915년						
			13							
16	81263	중복21	K1	大般若波羅蜜多經	34	黃	5(단면)	고종 24년(1237)		
		511					원판11226	5(단면)		조선시대
17	81264	중복22	K1	大般若波羅蜜多經	37	黃	9	고종 24년(1237)		
		561					원판11276			10
		562					원판11277	9(단면)		조선시대
			10(단면)	조선시대						
18	81265	중복23	K1	大般若波羅蜜多經	38	黃	8(단면)	고종 24년(1237)		
		578					원판11293	8(단면)		조선시대
19	81266	중복24	K1	大般若波羅蜜多經	39	黃	7	고종 24년(1237)		
							8			
		585					원판11310	7		조선시대
			8							
20	81268	중복26	K1	大般若波羅蜜多經	42	宇	7	고종 24년(1237)		
							8			
		644					원판11359	7		조선시대
			8							
21	81269	중복27	K1	大般若波羅蜜多經	49	宇	6	1937년	순차30 참조	
		750			원판11465	73	荒			2
					49	宇	6(단면)	고종 24년(1237)		
22	81270	중복28	K1	大般若波羅蜜多經	53	宙	1(단면)	조선후기		
		811					원판11526	1(단면)		고종 24년(1237)
23	81272	중복30	K1	大般若波羅蜜多經	56	宙	3	1915년		
							4			
		81271					중복29	3		1937년
			4							
	858	원판11573	3	고종 24년(1237)						
			4							
24	81273	중복31	K1	大般若波羅蜜多經	56	宙	15	고종 24년(1237)		
							16			
		81274					중복32	15		1937년
								16		
	865	원판11580	15	1915년						
			16							
25	81275	중복33	K1	大般若波羅蜜多經	56	宙	23	고종 24년(1237)		
							24			
		870					원판11585	23		조선시대
			24							

순차	경판고유 코드번호	조사번호	경번호	경전이름	권차	합차	장차	조성 · 보각시기	참조
26	81276	중복34	K1	大般若波羅蜜多經	67	洪	3(단면)	고종 24년(1237)	
	1021	원판11736					3(단면)	조선시대	
27	81277	중복35	K1	大般若波羅蜜多經	67	洪	9	고종 24년(1237)	
	81278	중복36					10		
							9	1937년	
	10								
1025	원판11740	9	1915년						
		10							
28	81280	중복38	K1	大般若波羅蜜多經	68	洪	2(단면)	1915년	순차71 참조
	81279	중복37	K1066	集古今佛道論衡	丁(4)	星	44	1937년	
	1035	원판11750	K1	大般若波羅蜜多經	68	洪	2(단면)	고종 24년(1237)	
29	81281	중복39	K1	大般若波羅蜜多經	69	洪	24(단면)	고종 24년(1237)	
	1064	원판11779					24(단면)	조선시대	
30	81283	중복41	K1	大般若波羅蜜多經	73	荒	2(단면)	1915년	순차21 참조
	1110	원판11825					2	고종 24년(1237)	
31	81284	중복42	K1	大般若波羅蜜多經	76	荒	20	고종 24년(1237)	
	1163	원판11879					21		
							20	우왕~간경도감	
21									
32	81285	중복43	K1	大般若波羅蜜多經	78	荒	23	고종 24년(1237)	
							24		
	1191	원판11907					23	우왕~간경도감	
							24		
33	81286	중복44	K1	大般若波羅蜜多經	96	月	14(단면)	고종 25년(1238)	
	1439	원판12155					14(단면)	조선시대	
34	81287	중복45	K1	大般若波羅蜜多經	100	月	3(단면)	조선시대	
	1489	원판12205					3	고종 25년(1238)	
35	81288	중복46	K1	大般若波羅蜜多經	106	盈	3	고종 25년(1238)	
							4		
	1568	원판12284					3	무진년	
							4		
36	81289	중복47	K1	大般若波羅蜜多經	106	盈	5	고종 25년(1238)	
							6		
	1569	원판12285					5	조선시대	
							6		
37	81291	중복49	K1	大般若波羅蜜多經	109	盈	16	고종 25년(1238)	
							17		
	81290	중복48					16	조선시대	
							17		
	1613	원판12329					16	우왕~간경도감	
17									
38	81292	중복50	K1	大般若波羅蜜多經	122	辰	12	고종 24년(1237)	
							13		
	1778	원판12494					12	조선시대	
							13		

순차	경판고유 코드번호	조사번호	경번호	경전이름	권차	합차	장차	조성 · 보각시기	참조
39	81282	중복40	K1	大般若波羅蜜多經	126	辰	19	고종 25년(1238)	
	81310	중복68					20		
	1836	원판12532					19	1937년	
							20	1915년	
40	81293	중복51	K1	大般若波羅蜜多經	130	辰	9	고종 25년(1238)	
	1881	원판12597					10		
							9	조선시대	
							10		
41	81295	중복53	K1	大般若波羅蜜多經	141	列	6(단면)	고종 25년(1238)	
	81294	중복52					6(단면)	1937년	
	2014	원판12730					6(단면)	1915년	
42	81296	중복54	K1	大般若波羅蜜多經	144	列	19	고종 25년(1238)	
	81297	중복55					23(단면)		
	2061	원판12777					19(단면)	조선후기	
	2064	원판12780					23(단면)	1915년	
43	81299	중복57	K1	大般若波羅蜜多經	153	張	20	고종 25년(1238)	
	81298	중복56					21		
	2180	원판12896					20(단면)	1937년	
	2181	원판12897					20(단면)	1915년	
							21(단면)	조선후기	
44	81300	중복58	K1	大般若波羅蜜多經	159	張	3	고종 25년(1238)	
	2249	원판12965					4		
							3	우왕~간경도감	
							4		
45	81267	중복25	K1	大般若波羅蜜多經	162	寒	1	고종 25년(1238)	
	2286	원판13002					2		
							1	조선후기	
							2		
46	81302	중복60	K1	大般若波羅蜜多經	170	寒	23	고종 25년(1238)	
	81301	중복59					24		
	2402	원판13118					23	조선시대	
							24	우왕~간경도감	
							23		
							24		
47	81250	중복8	K1	大般若波羅蜜多經	176	來	21(단면)	고종 25년(1238)	
	2480	원판13196					21(단면)	우왕~간경도감	
48	81314	중복72	K1	大般若波羅蜜多經	178	來	19	고종 25년(1238)	
	2506	원판13222					20		
							19	우왕~간경도감	
							20		
49	81303	중복61	K1	大般若波羅蜜多經	180	來	11	고종 25년(1238)	
	2532	원판13248					12		
							11	우왕~간경도감	

순차	경판고유 코드번호	조사번호	경번호	경전이름	권차	합차	장차	조성 · 보각시기	참조
50	81304	증복62	K1	大般若波羅蜜多經	187	罽	12(단면)	고종 25년(1238)	
	2620	원판13336					12(단면)	조선시대	
51	81305	증복63	K1	大般若波羅蜜多經	188	罽	15	고종 25년(1238)	
							16		
	2634	원판13350					15	조선시대	
							16		
52	81306	증복64	K1	大般若波羅蜜多經	209	秋	10	고종 25년(1238)	
							11		
	2897	원판13613					10	조선시대	
							11		
53	81307	증복65	K1	大般若波羅蜜多經	209	秋	20	고종 25년(1238)	
							21		
	2902	원판13618					20	조선시대	
							21		
54	81308	증복66	K1	大般若波羅蜜多經	216	收	1	고종 25년(1238)	
							2		
	2982	원판13698					1	조선시대	
							2		
55	81309	증복67	K1	大般若波羅蜜多經	224	冬	7	고종 25년(1238)	
							8		
	3085	원판13801					7	조선시대	
							8		
56	81311	증복69	K1	大般若波羅蜜多經	228	冬	8	고종 25년(1238)	
							9		
	3137	원판13853					8	무진년	
							9		
57	81313	증복71	K1	大般若波羅蜜多經	254	餘	3	고종 25년(1238)	
							4		
	3464	원판14180					3	조선시대	
							4		
58	81315	증복73	K1	大般若波羅蜜多經	506	巨	7	고종 25년(1238)	
							8		
	6741	원판22929					7	조선시대	
							8		
59	81312	증복70	K1	大般若波羅蜜多經	534	稱	19	고종 25년(1238)	
							20		
	7142	원판23330					19	우왕~간경도감	
							20		
60	81316	증복74	K125	大乘悲分陀利經	1	白	28	고종 30년(1243)	
							29		
	17307	원판17798					28	우왕~간경도감	
							29		
61	81317	증복75	K128	合部金光明經	5	場	9	조선후기	
							10		
	17723	원판18214					9	고종 29년(1242)	
							10		

순차	경판고유 코드번호	조사번호	경번호	경전이름	권차	합차	장차	조성 · 보각시기	참조
62	81319	중복77	K197	佛說彌勒下生經	단권	養	7	고종 26년(1239)	
		8							
	20170	원판20659					7	조선시대	
		8							
63	81322	중복80	K583	大乘廣百論釋論	4	是	15(단면)	우왕~간경도감	순차78 참조
	81321	중복79					15(단면)		
	81320	중복78	K1432	菩提心離相論	단권	起	6	1937년	
	31213	원판31212	K583	大乘廣百論釋論	4	是	15	고종 30년(1243)	
64	81323	중복81	K587	大 毘論經	2	事	19	1937년	
		20							
	31759	원판31758					19	고종 30년(1243)	
		20							
65	81324	중복82	K889	摩訶僧祇律	33	仕	24(단면)	조선후기	
	40228	원판50920					24	고종 31년(1244)	
66	81325	중복83	K890	十誦律	5	攝	34(단면)	조선후기	
	40427	원판56119					34	고종 23(1236)~38년	
67	81326	중복84	K952	阿毗達磨大毗婆沙論	88	節	5	1937년	
		6							
	49647	원판37994					5	1915년	
		6							
68	81327	중복85	K956	阿毗達磨順正理論	7	志	17	1937년	
		18							
	51707	원판40054					17	1915년	
	18								
69	81328	중복86	K982	出曜經	16	殿	7(단면)	우왕~간경도감	
	55682	원판44029					7	고종 31년(1244)	
70	55798	중복87-1 (추가 원판44145)	K982	出曜經	25	盤	17(단면)	1915년	
	81329	중복87					17(단면)	1937년	
	55797	원판44144					17	고종 31년(1244)	
	81330	중복88					44(단면)	우왕~간경도감	
71	81331	중복89	K1066	集古今佛道論衡	丁(4)	星	44(단면)	1915년	순차28 참조
	61001	원판65517					44	고종 31년(1244)	
72	81332	중복90	K1075	續高僧傳	24	明	37(단면)	조선후기	
	62037	원판66553					37(단면)	고종 30년(1243)	
73	81333	중복91	K1075	續高僧傳	27	明	17(단면)	우왕~간경도감	
	62096	원판66612					17	고종 30년(1243)	
74	81334	중복92	K1121	菩提行經	2	書	11	우왕~간경도감	
		12							
	63697	원판68213					11	고종 32년(1245)	
	12								
75	81335	중복93	K1263	新華嚴經論	33	銘	22(단면)	조선후기	
	68118	원판51051					22	고종 33년(1246)	
76	81336	중복94	K1406	法苑珠林	53	滅	30(단면)	우왕~간경도감	
	73705	원판73704					30	고종 31년(1244)	

순차	경판고유 코드번호	조사번호	경번호	경전이름	권차	합차	장차	조성 · 보각시기	참조	
77	81337	중복95	K1406	法苑珠林	66	踐	17	우왕~간경도감		
		73936					원판73935			18
								17		고종 31년(1244)
								18		
78	81338	중복96	K1432	菩提心離相論	단권	起	6(단면)	1915년	순차63 참조	
		75047					원판75046	6		고종 31년(1244)
79	81339	중복97	K1454	佛說秘密三昧大教王經	2	軍	8(단면)	조선후기		
		75300					원판75299	8		고종 23(1236)~38년
80	81340	중복98	K1454	佛說秘密三昧大教王經	2	軍	15(단면)	조선후기		
		75304					원판75303	15		고종 23(1236)~38년
81	81341	중복99	K1499	宗鏡錄	62	輕	10(단면)	우왕~간경도감		
		78923					원판78922	10		고종 35년(1248)
82	81342	중복100	K1500	南明泉和尚頌證道歌事實	1		8(단면)	우왕~간경도감		
		79215					원판79214	8		고종 35년(1248)
83	81343	중복101	K1500	南明泉和尚頌證道歌事實	3		24(단면)	우왕~간경도감		
		79240					원판79239	24		고종 35년(1248)
84	81344	중복102	K1508	釋華嚴旨歸章圖通鈔	하권		7	우왕~간경도감		
		80124					원판80123			8
								7		고종 38년(1251)
								8		
85	80326	중복109 (추가 원판80325)	K1510	釋華嚴教分記圖通鈔	10		9	고종 38년(1251)		
		81240					원판80325-1			10
								9		을유년
								10		
86	81241	중복111 (추가 80349-1)	K1511	禮念彌陀道場懺法	1		17	조선후기		
		80350					원판80349			18
								17		연산 9년(1503)
								18		
87	81242	중복112(추가 80352-1)	K1511	禮念彌陀道場懺法	2		4	조선후기		
		80353					원판80352			5
								4		연산 9년(1503)
								5		
88	81345	중복103	K1513	花嚴經探玄記	1		36	우왕~간경도감		
		80591					원판80590			25
		81056					원판81055	1		고종 23(1236)~38년
								18		고종 32년(1245)
89	81346	중복104	K1513	花嚴經探玄記	12		3(단면)	우왕~간경도감		
		80882					원판80881	3		고종 23(1236)~38년
90	81347	중복105	K1513	花嚴經探玄記	15		35	우왕~간경도감		
		80976					원판80975			32
		81003					원판81002	15		고종 32년(1245)
								16		고종 32년(1245)
91	81348	중복106	K1513	花嚴經探玄記	16		10(단면)	우왕~간경도감		
		80992					원판80991	10		고종 32년(1245)

순차	경판고유 코드번호	조사번호	경번호	경전이름	권차	합차	장차	조성 · 보각시기	참조
92	81349	중복107	K1513	花嚴經探玄記	17		29	고종 32년(1245)	
							30		
	81027	원판81026					29	우왕~간경도감	
							30		
93	81350	중복108	K1513	花嚴經探玄記	17		59	우왕~간경도감	
							60		
	81042	원판81041					59	고종 32년(1245)	
							60		
94	81118	원판81117	K1514	補遺目錄	단권		앞면	조선 고종 2년(1865)	원판
							뒷면		
	사간 (5824)	중복110 (추가)					앞면	1937년	
							뒷면		

※ 본 표는 최영호 외, 『海印寺 寺刊板 내 大藏經板 중복여부 조사용역사업 보고서』(문화재청·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석당학술원, 2015, 319~325쪽의 [부록 2])에서 재인용. 본 표 가운데 1판 양면의 특정 경판이 앞·뒷면에 각각 다른 卷次나 경전종류가 판각된 경우에는 경전순서와 권차순서가 앞선 경판에 편입하여 소개하고 이후 순서의 경판에서 제외. 그 사례는 순차 21의 『대반야바라밀다경』 권49, 제6장의 뒷면에 새겨진 같은 경전 권73, 제2장의 경판을 순차 30의 경판에서 반복하지 않은 경우, 순차 28의 『집고금불도론형』 권정(4)의 제44장 및 순차 63의 『보리심이상론』 단권의 제6장을 순차 71 및 순차 78에서 각각 제외한 경우.

※ 국보 제32호 해인사대장경판 가운데 현재까지 확인된 개별 중복경판은 원판분류경판이 99판이며, 중복분류경판이 112판으로 94종(순차 88·90의 『화엄경탐현기』 원판을 기준으로 하여 2중으로 분리하면 96종. 반복 소개를 피하기 위해 각각 1중으로 묶어 분류) 총211판. 이 가운데 원판이 93판이며, 후대 보각경판이 118판. 연산군 9년(1503)과 조선 고종 2년(1865)에 조성된 순차 86·87·94의 경판도 13세기 중엽 조성의 원판과 마찬가지로 원판으로 분류. 다만, 원판의 수량 가운데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 13세기 중엽 조성 원판의 3판(순차 15·67·68)은 93판에서 미산정.

## 참고문헌

### <사료>

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한국근현대잡지자료.

동아대학교 함진재 소장 해인사대장경판 인경본.

문화재청/문화유산정보(<http://www.cha.go.kr/korea/heritage>).

해인사 팔만대장경연구원/ 해인사대장경판 디지털사진(<http://i80000.or.kr>).

『京城日報』

『국보 제32호 함진재 海印寺大藏經板 중복판 조사용역사업 보고서』(최영호 외, 범보종찰 해인사·함진군·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5).

『大乘瑜伽金 性海曼殊室利千臂千鉢大教王經』·『補遺目錄』·『海印寺重修記』·『大藏經板(修補跋文)』·『印大藏經跋』(이상 해인사 팔만대장경연구원 디지털사진 및 동아대학교 함진재 소장 인경본)

『陶隱集』

『東文選』

『東亞日報』

『每日申報』

『牧隱詩藁』

『朝鮮總督府官報』

『海印寺 寺刊板 내 大藏經板 중복여부 조사용역사업 보고서』(최영호 외, 문화재청·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석당학술원, 2015).

### <논저>

高橋亨, 「高麗大藏經板印出顛末」, 『朝鮮學報』 2, 朝鮮學會, 1951.

高橋亨, 「海印寺大藏經について」, 『哲學雜誌』 327, 1914.

국립문화재연구소, 『海外典籍文化財調査目錄』, 日本 大谷大學 所藏 高麗大藏經, 2008.

金雲皐, 「海印寺와 大藏經」, 『朝鮮佛教叢報』 6, 삼십본산연합사무소, 1917.

金潤坤, 「高麗大藏經의 東亞大本과 彫成主體에 대한 考察」, 『石堂論叢』 24, 동아대 석당학술원, 1999.

金潤坤, 『고려대장경의 새로운 이해』, 불교시대사, 2002.

金泰洽, 「논설 : 朝鮮佛教의 功過論」, 『개벽』 신간 제1호, 1934.11.01.

李箕永, 「海印寺 紀行」, 『三千里』 12-6, 三千里社, 1940.06.01.

- 無能居士, 「李朝佛教史(八) : 第五章 高麗雕造大藏經板의 考證」, 『佛敎』 8, 1925.
- 朴泳洙, 「高麗大藏經板의 研究」, 『佛敎學論文集』, 白性郁博士頌壽紀念, 동국문화사, 1959.
- 尙玄(李能和), 「海印寺大藏經板來歷」, 『佛敎振興會月報』 7, 불교진흥회, 1915.
- 徐首生, 「伽倻山 海印寺 八萬大藏經 研究(1)」, 『慶大論文集』 12, 경북대, 1968.
- 徐首生, 「大藏經의 二重板과 補遺板 研究」, 『東洋文化研究』 4, 경북대 동양문화연구소, 1977.
- 小田幹治郎·寺內正毅, 「高麗板大藏經印刷顛末(1915)」, 東山 泉湧寺, 1923.
- 宋道永, 「八萬大藏經盜難秘話 特히 國寶의 保存問題에 關하여」, 『경향신문』 1947.04.10.
- 雲阜 金一字, 「乾鳳寺燒身臺石塔新築記」, 『朝鮮佛敎叢報』 5, 삼십본산연합사무소, 1917.
- 任得均(性安스님), 「『高麗大藏經』의 海印寺 봉안과 사원의 위상」, 『石堂論叢』 54, 동아대 석당학술원, 2012.
- 趙明基, 「학술 : 國寶 『八萬大藏經』의 由來—그 價値와 保管에 對해서」, 『東亞日報』 1961.04.29.
- 池內宏, 「高麗朝の大藏經(上·下)」, 『東洋學報』 13-3·14-1, 1923·1924.
- 池內宏, 『滿鮮史研究』 中世2, 1937.
- 최영호, 「江華京판 『高麗大藏經』의 판각사업 연구」 경인문화사, 2008.
- 崔永好, 「高麗國大藏都監의 조직체계와 역할」, 『한국중세사연구』 31, 2011.
- 崔永好, 「해인사 소장 江華京板 『高麗大藏經』의 일체강점기 補刻板 조성현황과 성격」, 『한국중세사연구』 40, 한국중세학회, 2014.
- 和山博重, 「伽倻山海印寺經板について(上)」, 『文獻報國』 10-3, 朝鮮總督府圖書館, 1944.03.

Abstract

A Study on the Historical & Cultural Character & the Conservation-plan of a Duplicate Woodblock & Re-Engraved Woodblock that have been Included among the Haein-temple-Tripitaka Printing Blocks(海印寺大藏經板)

Choy, Young -Ho

This paper attempt to totalize the substance & character of a duplicate-woodblock & re-engraved-woodblock that have been included among the Haein-temple-Tripitaka Printing Blocks, and diagnosticate the practical ways that can adjust the total-number of the Haein-temple-Tripitaka Printing Blocks again.

The total-number of the Haein-temple-Tripitaka Printing Blocks have been investigated by 81,258 woodblocks in the 1914. thereafter, the total-number have been investigated by 81,350 Blocks in the 1999~2008 year, and have been increased by 81,352 woodblocks in the 2013 year. because 2 woodblocks of *the Najeonsuhameumso-Sutra*(內典隨函音疏) have been discovered in the 2013 year. therefore, we have conducted an objective investigation that can newly adjust the total-number in the 2012~2013 & 2015 year. as a result, we have confirmed a re-engraved-woodblocks of 118 woodblocks that have been included among a duplicate-woodblocks of the Haein-temple-Tripitaka Printing Blocks.

The total-number of the Haein-temple-Tripitaka Printing Blocks can be newly adjusted in three ways. among three ways, the best way is intended for 81,352 woodblocks that included in the re-engraved-woodblocks & the duplicate-woodblocks. because the historical & cultural character of the re-engraved-woodblocks & the duplicate-woodblocks can be reflected, and present conservation-form of the Haein-temple-Tripitaka Printing Blocks can be considered.

Key Words : the Haein-temple(海印寺), the Haein-temple-Tripitaka  
Printing Blocks(海印寺大藏經板), a duplicate-woodblock,  
a re-engraved-woodblock, *the Najeonsuhameumso-Sutra*  
(內典隨函音疏)

